

전북대 LINC+사업단, 전주 도시재생사업 추진 나선다

전주도시혁신센터와 협약... 도시재생 사업 발굴, 전문가 육성

전북대학교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단장 교영호 교수·이하 LINC+사업단)은 전주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창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도시혁신센터(센터장 김창환)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4일 오전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전북대 교영호 단장과 김창환 전주도시혁신센터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전주 도시재생사업 추진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전주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사업을 함께 발굴·참여하는 한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멘토링 및 투자연계 등을 위해 산학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통해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중심 창업 리빙랩 관련 사업도 협력하기로 했다.

교영호 전북대 LINC+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전주 도시재생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 실무인력 양성을 통해 대학과 전주시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전북대학교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전주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창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일 전주도시혁신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

것"이라며,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중심 리빙랩 관련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 농소파출소, 출근길·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 농소파출소(소장 권기홍)는 4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정읍여자중학교 앞에서 농소자율방범대원, 정읍여중 교사, 아동안전지킴이와 함께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안전운전은 가족을 지키고 신호등은 생명줄"이라는 어깨띠를 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차량운전자들에게 전하고 등굣길 횡단하는 학생들은 안전하게 보행시킴으로써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또한 도로공사 이후 발생한 불편한 진실을 청취·공유·시정해 경찰과 주민, 협력단체가 하나가 되는 탄탄한 치안망을 구성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이 관내 30~60대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자 모집은 오는 12일까지로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63-320-8241)으로 하면 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20인 이상 사업장 2곳과 개인 20명을 선정 받아 금연과 절주, 영양, 비만, 신체활동, 한방, 구강, 심뇌혈관 예방 관련 내용을 방문(사업장)과 집합교육(개인)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연다지기 단계에서는 기초검사와 금연·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금연·운동사약을 하게 되며 건강다지기 단계에서는 요가 및 근력운동·걷기, 식생활 관리와 한방치료, 구강검진·상담 등이 이어진다.

영양행태 조사·분석과 건강 식단에 대한 정보 제공, 조리실습 등은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며 금연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금연지원센터와 함께 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성 기자



김제시보건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전북도 최우수기관 선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수립 관련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전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 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2장제7조~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김제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팀 20여명을 주축으로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이영훈, 오경재 교수의 연구 진행 및 자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안을 작성하여 올해 1월 전라북도에 제출하였다.

김제시는 "함께하는 건강, 행복한 김제"라는 비전 아래, '공공의료 강화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체계 수립, 다분야 협력·조정을 통한 건강안정감 확보'의 중점 정책전략 3개 분야 및 이하 10개 추진과제, 37개 세부추진과제 설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접근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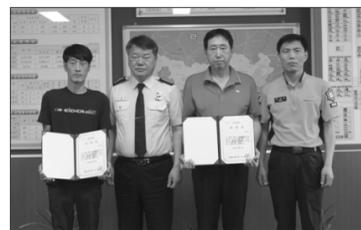
무주군재향군인회, 충혼탑 주변 자연정화 활동

무주군재향군인회(회장 김동인)는 4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충혼탑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김동인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원이 쓰레기 수거, 주변 정리 등 충혼탑 및 공원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이 자리에 참여한 이성자 여성회장은 "현충시설 정화사업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보훈의 교육장을 제공하는 일이라"며서 앞으로 현충시설을 아끼고 보존하는데 향군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남원소방서, 올해 첫 더블보상제 수혜자 탄생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4일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유성진(39)씨와 공재선(60)씨에게 표창장과 소화기 6대를 전달했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4시경 귀가 중 금동의 주택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화재현장 부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공씨와 함께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 진화에 나서 연소 확대 방지에 기여했다.

남원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화재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블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더블 보상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며, 소방서장 표창도 수여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동지구대, 노인자치경찰대와 간담회 가져

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는 지난 3일 도동지구대에서 노인자치경찰대와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노인자치경찰대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등·하교시 보호활동 및 비행탈선방지 지킴이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절도예방활동 및 신고 등 지역치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권 지구대장은 아동대상 범죄예방활동,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사고예방 등 학생지도활동에 대해 노인자치경찰대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동권 대장은 지역사회 민·관·경 조직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는 노인자치경찰대 활동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지역 치안 활동에 대한 주민 관심환기 및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